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렘 강해 설교 21)

성경말씀: 렘29:1-14

예레미야서의 구조, 1-29장은 예레미야의 회개 촉구, 그러나 결국 포로로 끌려감.

30-33장은 유다의 회복(바빌론 포로생활에서의 회복과 천년왕국 이전의 회복), 34-39장은 예루살렘의 멸망, 40-45장은 멸망 이후의 일들, 46-51 주변 민족들에 대한 예언, 52장: 멸망 반복
1-28장에서 30년 이상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죄와 하나님의 마음과 심판에 대해 대언함.

그러나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백성이 포로로 끌고 가는 일이 생김.
29장에는 네 개의 편지가 나옴: 1.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보낸 것(1-14절), 2. 바빌론의 거짓 대언자들에게 대하여 예레미야가 보낸 것(15-23절), 3. 바빌론에서 스마야가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장들에게 보낸 것(예레미야가 읽음, 24-29절), 4. 예레미야가 스마야에 대하여 포로들에게 보낸 것(30-32)
바빌론 포로 생활은 3단계로 이루어짐: BC 606년(단1:1), BC 597년(여고니아), BC 586년(함락)
1-14절의 편지는 2차 포로 생활이 시작된 BC 597년 이후의 어느 시점에서 기록됨.

유대인들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며 사는 민족으로 이교도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예레미야는 이들이 그 우상들의 땅에서 좋은 증인이 되기를 원했다. 또 선한 시민으로 살기를 원했다.

대언자는 죄악으로 인해 포로가 된 자들을 위해서 여전히 목자의 심정으로 관심을 보이며 권면함.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

샤머니즘: '지성이면 감천이다.'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이다.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한다(호4:6; 요17:3).

예레미야 강해를, 성경을 읽음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알게 되었다.

1. 공의로우시다: “나는 죄를 미워한다.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으로서 정의롭게 살아라.” 대언자를 통해 계시하고 말씀하고 기록해 주신다.
2. 오래 참으신다: 400년 동안의 왕정 시대, 참고 참고 참으신다(벧후3:9). 사랑에서 나온다. 파라오(모세), 사울(다윗), 아합(엘리아), 니느웨(요나), 온 인류(예수님)
3. 참으심의 끝에는 심판과 징계가 있다: 불신자와 신자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다(히12:5-11),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특히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10). 하나님은 자신과 같은 자들과만 사시려 하신다. 그분의 가장 큰 특징: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징계는 슬픈 것이다(11). 그러나 단련되면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4. 징계(포로 생활) 중에도 사랑하신다. 예레미야를 통해 이것을 보여 주신다. 자기 자식이므로
5. 회개하고 돌이키면 누구라도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다 용서하신다.
모세와 같은 살인자, 다윗과 같은 간음/살인자, 사울과 같은 신성모독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포로 생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다(눅5:32).

죄란 무엇인가? 과녁에서 벗어난 것

1.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이 죄다.
2. 창조물이 창조주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다.
3. 내 주인의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죄다.
4. 그 하나님이 죽을 죄인들을 구원하실 방법을 다 마련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죄다.
5. 내 힘으로 착하게 살면 되겠지 하고는 맹목적으로 밀고나가는 것이 죄다.
6. 집안이 좋으니까, 공부 많이 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봐주시겠지 하고 달려가는 것이 죄다.
7. 뜻을 돌이키지 않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이 죄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먼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히9:27).

이렇게 구원 받은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 포로 생활
육의 경우처럼 특별히 잘못된 것이 없는데 마귀의 사주로 인해 삶에 재난이 닥치기도 한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계10:7,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이것이 인생이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의 운명이다. 심지어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닥친다.

1. 신실하게 살아도 이혼의 위기가 온다. 아이들 문제

2. 선하게 행해도 오히려 손해가 온다. 부지런히 일해도 오히려 해고가 된다. 비방을 받는다.

3. 남과 북의 대치 상황: 아무리 퍼 줘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소용이 없다. 이게 인생이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며 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육신의 포로, 죄의 포로, 악법의 포로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에게 속해 있다. 동성애 차별 방지법 같은 악법이 들어선다.

목사와 성도가 할 말을 못하게 하는 세상, WCC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징계를 당하는 성도로서)

1. 현실을 인정해라.

바빌론의 포로들은 목숨만 남고 다 잃었다. 자유도 없고 노예가 되었으며 집도 없고 먹고살 방법이 없었다. 또 어떤 이들은 가다가 죽었다. 주변 환경이 전혀 소망이 없어 보였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한다. 징계로서, 연단을 위해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긴다. 악한 일이 생기는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4절)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시137:1-4의 유대인들처럼 잠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방법은 아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해야 할 일은 용기 있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정을 아시니 해결해 주실 거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자기의 방법대로 풀려고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스마엘을 낳는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모습

2. 지금의 현실에서 감사하고 열심히 일하라.

거짓 대언자들은 바빌론 포로 생활이 짧을 테니 거기에 정착할 생각을 하지 말고 대충 살라고 함.

예레미야는 그 생활이 70년이나 되므로(10절) 거기서 정착하라고 함. 하나님은 지금 이 포로들의 씨를 통해 다시 유다를 건설하려고 하심. 그러므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 가서는 안 된다.

해야 할 일:

a.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해야 한다(7). 지금 우리는 한국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는가? 이 땅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이 땅과 백성의 평안을 구하는가? 나라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을 미워해야 한다. 민족이 먼저가 아니고 자유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가 먼저이다. 먹고 자고 입고 자유롭게 말하고 움직이며 믿는 권리 통치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딤후2:1-3; 딤후3:1-2).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다니엘).

b. 열심히 일해야 한다(5).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아야 한다(살후3:10-12).

c. 아들딸을 많이 낳아야 한다(6). 결혼해야 한다. 하나님의 경건한 씨를 많이 남기기 위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 뜻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

d. 바빌론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한다(7).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마5:43-48).

하나님의 약속

1.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10). 그 뒤에 분명히 이루어졌다.

징계의 시간이 있다. 그 뒤에 하나님의 복구가 있다. 확신을 가져라.

2.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다(11).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생각하신다(시8:3-4). 부모, 남편과 아내, 자식은 생각 못해도 주님은 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 되셨다. 그래서 심지어 징계도 복이다(롬8:28).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3. 기대하던 결말을 주려는 것이다.